

# 혁신도시 시즌2 급부상... 나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

지난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이전 대상, 최대 150여곳 거론 “시설 추가이전 방안 구체화해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조만간 수면위로 급부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부가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 공공기관 2차 추가이전 계획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해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10개 혁신 도시에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대전, 충남까지 포함해 총 12곳으로 분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근무인력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며, 최대 150여곳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계획안이 앞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이 지난해 7월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차 보고한 ‘공공기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뉴시스

(100곳) 2차 지방이전 계획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시 보고 안에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0여곳 중에는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목표한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선제적 대응과 상호 중박 경쟁이 아닌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는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생명, 환경생태, 과학기술, 복지

노동 등 7개 분야 기관을 유치 목표로 세우고 있다.

전남도도와 나주시도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와 농생명, 정보통신 분야를 이전 대상으로 분류하고 물밀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나주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4),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5),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정보통신(4),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분야(3) 등 4개 분과 총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이 중 한전은 수도권 등에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의 경우, 근무 인원은 100명이지만 부지면적은 68만1201㎡(20만6000평)에 달한다.

한전이 인재개발원을 나주본사 인근으로 이전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기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할 경우 심각한 적자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수도권에 4개 부속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농어촌연구원(134명)과 인재개발원(54명)을 비롯해 안양 농어촌자원개발원(68명), 대전 서구에는 안전진단사업단(105명)을 두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나주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모든 산하기관을 이전키로 계획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현재까지 산하기관 3곳을 수도권에 남겨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원시에 소재한 농식품유통교육원(33명)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입주한 식품기업지원센터(30명), 사이버거래소(57명) 등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단된 나머지 부속 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해

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가핵심 기관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 3곳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전남은 이전 후보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3곳의 이전 지역은 산업은행-강원도 원주, 기업은행-대전, 수출입은행-부산 등이며, 3곳 모두 혁신도시이다.

해당 국책은행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이 전무한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도가 농도(農道)의 장점을 내세워 농협중앙회 유치에 적극 나서 성공할 경우 대형 금융기관 부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한 해 예산만 3조원에 산하 계열사 임직원은 8만여 명에 달해 전남 지역 이전에 성공할 경우 한전 본사 이전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김태우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경북 ‘의성관광문화단지’ 조성 잔결음

의성군, ㈜투바앤과 업무 협약 총 1조 들여 2028년까지 구축

경북 의성군이 추진 중인 ‘의성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의성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투바앤(대표 김광용)과 의성관광문화단지 조성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통합신공항 유치와 연계한 의성관광문화단지(의성랜드) 조성 일환이다.

의성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비 1조 원을 투입해 부지 330만㎡(약 100만평) 규모로 계획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민자 8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광용 ㈜투바앤 대표가 의성관광문화단지 조성 관련 업무 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총 1조원을 들여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구상연구구역은 경북도가 지난 1월 완료했다. 의성군은 현재 대장지 입

지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투바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뷰를 상회하는 인기 토종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사이다. 주요 캐릭터를 활용해 테마파크 조성, 영화제작, 모바일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관광문화단지는 입지와 주변 도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은 성공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이 캐릭터 관광자원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신안군은 비금면 지동마을에서 붉은해변공원사업소 현판식을 진행했다.

## 신안 비금도에 ‘붉은 해변공원’ 조성

붉은해변공원사업소 현판식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해당화의 붉은 빛을 테마로 하는 붉은해변공원이 조성된다.

신안군은 비금면 지동마을에서 붉은해변공원사업소 현판식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붉은해변공원은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1004섬’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미 1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연차사업으로 모두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붉은해변공원은 비금~암태 추포 연도교 개통에 대비해 54ha 규모로 조성된다.

비금면의 상징인 해당화의 붉은 빛을 테마로 다양한 붉은색 계열의 꽃과 나무를 식재해 사계절 붉은 정열과 낭만의 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주요시설은 편백나무와 천일염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청년들의 귀촌 유치를 위한 스마트 혁신온실(바나나 하우스), 해당화 정원, 해변 체험공간, 수변 휴식공간 등이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 경북 유·초등교사 임용 경쟁률 3.25대 1 (평균)

1413명 지원... 435명 선발

경북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유치원·초등교사 선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3.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35명을 뽑는 이번 원서 접수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이뤄졌으며 여기에 1413명이 지원했다.

이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017학년도 1.72:1, 2018학년도 1.73:1, 2019학년도 1.66:1, 2020학년도 2.21:1, 2021학년도 2.65: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험의 일반 전형 경쟁률은 유치원 44명 선발에 725명이 지원해 16.48대 1로 가장 높았고 초등은 328명 선발에 577명이 지원해 1.76대 1, 특수

유치원은 8명 선발에 21명이 지원해 2.63대 1, 특수초등은 26명 선발에 86명이 지원해 3.3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일반 전형 전체 경쟁률은 3.47대 1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형은 유치원 4명 선발에 2명이 지원해 0.5대 1, 초등 24명 선발에 1명이 지원해 0.04대 1, 특수초등은 1명 선발에 1명이 지원해 1대 1의 경쟁률로 장애인 전형 전체 경쟁률은 0.14대 1로 나타나 일반 전형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교육청은 다음달 5일 시험장소를 공고하고, 13일 1차 시험을 시행하며, 12월 15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1차 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 영양군 영양장사씨름대회 개최

영양군(영양군수 오도창)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영양군 국민체육센터 2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영양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씨름협회(회장 황경수)가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회장 박재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자부(태백, 금강, 한라, 백두급) 4체급에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은 대회 48시간 전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 선수등록이 가능하고, 경기장 출입 시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안심판을 이용한 출입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경북=김태우 기자

## 김영만 군수, 2억 뇌물 수수 혐의 ‘무죄’ (군위군)

2심서 원심 판결 파기 후 무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사진)가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북=김태우 기자